

한국타이어, 러시아·CIS 공략 강화

2010 모스크바 국제 오토살롱 참가 ... 친환경·고성능 겨울제품 선보여

한국타이어가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8월25일 개막하는 <2010 모스크바 국제 오토살롱>에 참가해 친환경 초고성능 겨울용 타이어 <윈터 아이썬트 에보>와 <윈터 아이파이크 LT> 등을 선보인다.

1990년대 초반 CIS 지역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2006년 모스크바에 해외지점을 설립해 5년간 4배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앞으로 CIS 지역에도 판매법인과 지점을 설립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브랜드담당 김세현 상무는 “모스크바 국제 오토살롱은 기술력을 알리는 동시에 러시아 및 CIS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브랜드 가치 향상과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부터 격년으로 열리고 있는 모스크바 국제 오토살롱은 세계 30개국 1000여 자동차 및 타이어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자동차 부품 및 튜닝 박람회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19>